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3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3일 (음력 5월 20일) 화요일



비내리는 광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는 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북상 중인 제 7호 태풍 '쁘라삐룬'은 3일 광주·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Photo漫評

## 하라인

국제상선공동량을 통한 남북 합정간 해상 하라인이 10년만에 다시 정상 가동됐다. 남북 해상 하라인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파격 사진 이후 끊겼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에 실시한 남북간 시험 통신에서는 연평도 인근 우리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동량을 활용하여 북측 경비함을 호출하였고 북측은 이에 즉각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신은 해군 함정에서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라는 함라산하 감명도소리의 명확도 7리터 북측 함정을 호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북측 함정은 '함라산 하나 함라산 하나 나는 백두산 하나 감도 다섯'이라고 응답하면서 시험통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함라산은 남측 호출 부호이고 백두산은 북측 호출 부호이다. 양국 정상 등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 신안 313.5mm · 보성 290mm 광주 · 전남 장맛비

신안 홍도에 313.5mm의 비가 내리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다. 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을 기해 전남 무안·신안(혹산면제외), 영광·함평, 광양·여수, 장성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다. 지난 달 30일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전 4시까지 신안 홍도 313.5mm를 최고로 보성 북내 290mm, 영광 낙월도 253mm, 여수 소리도 205mm, 여수시 114.8mm, 목포 임자도 157mm, 목포79.5mm, 광양 125mm, 순천 127mm, 구례

태풍 이동 속도 느려지면서 진로 동쪽으로 틀어져  
광주기상청 "산사태·침수 등 피해...안전사고 주의"

88mm, 화순 141mm, 광주 86.1mm를 기록 중이다. 비는 이날 오후까지 내륙지역은 80~150mm, 지리산부근 200mm 이상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인다 7호 태풍 '쁘라삐룬

(PRAPROON)'의 영향권에 드는 3일 새벽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 '쁘라삐룬'은 이날 오전 3시 중심기압 980hPa의 중소형급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100km 부근에서 시속 13km의 느린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태풍은 점점 이동속도가 빨라져 이날 오후 3시경에는 서귀포 남쪽 약 4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은 다음날 새벽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됐다. '쁘라삐룬'은 3일 오전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북진하다가 같은날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0hPa의 약소형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 태풍은 부산 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을 지나 울릉도와 독도 방향으로 북북동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태풍은 부산 북서쪽 육상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주변 기압부 세력이 활성화하며 진로가 동쪽으로 틀어졌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3일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침수, 축대붕괴, 하천범람 등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어난 하천 또는 계곡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봉우 기자



문재인



김정은



시민들

### '김영록號' 일자리·인구 방점 조직개편...정무부지사 공모·비서실장 소영호

전남도가 민선 7기 초대 정무부지사를 공모 하는 한편 일자리정책본부장과 인구정책관 신설 등 일자리와 인구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도청기자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는 경제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정무부지사는 일자리를 만들고, 중앙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개

방형으로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부지사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부지사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초대 비서실장에는 소영호 고흥부군수를 내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개편안이 인법예고되고 도의회까지 거치려면 8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

해 우선 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국장조직원 일자리정책본부장을 공식직제화해 선임 국장으로 임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 대책을 위해 인구정책관 관을 준국장으로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